

‘서고산성’ 전북자치도 문화유산 됐다

전주 서쪽 방어·축조 방법·변천 과정 알 수 있는 대표적 산성으로 역사적 가치 인정 받아

전주 황방산(서고산) 일원을 중심으로 전주 서부지역의 방어 기능을 담당했던 전주 서고산성(全州 西面山城)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지난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전주시 효자동 산 96번지 일원의 황방산에 위치한 전주 서고산성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서고산성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처음으로 기록됐으며, 지난 1970년대부터 2017년까지 3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서만 파악돼 왔다.

이에 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차례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된 토축 성벽과 통일신라시대에 개축된 석축 성벽, 그리고 삼국시대~후백제까지의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삼국시대 토축 성벽의 경우 산사면을 ‘ㄷ’자형 또는 계단식으로 굴착한 후 점토와 석재, 모래 등을 섞



전주 서고산성 전경

어 판축해 성벽이 축조됐으며,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백제의 토축 성벽을 일부 절토한 후 석축으로 대대적으로 개축한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서고산성은 이러한 성곽의 축조 방

법과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산성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토축 성벽을 중심으로 백제의 특징을 담은 통쪽와통흔(기와를 성형하는 데 사용하는 원형의 통으로 백제에서는 대나무로 제작)이 확인되는 기

와편과 다양한 기종의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으며, 석축 성벽과 건물지 내에서는 통일신라~후백제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확인됐다.

이러한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전주 서고산성은 성곽의 축조 방법과 변천 과정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고, 유물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시대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유적으로 평가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통해 더 이상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에 대한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 환경 보존구역에 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굴조사 및 산성 정비·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서고산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고, 보존해야 하는 전주의 중요한 유산”이라며 “향후 전주 서고산성이 올바르게 보존되고 정비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 한우 불고기 기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운섭)는 완산구청에 취약계층을 위한 한우 불고기 147.5kg(5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번 기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완산구 내 아동 그룹홈과 장애인 생활시설 21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정운섭 전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을 사랑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우협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회곤 완산구청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완산구의 이웃돕기 창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여 사랑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과 실시일반 모금해 ‘독립유공자 가족’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밤’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로타리클럽, 우아2동에 13년간 온정 베풀어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소흥근)은 지난 19일, 덕진구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김태완)를 방문하여 500만 원 상당의 이불과 식료품, 생활용품 세트를 후원했다.

소흥근 전주완산로타리클럽 회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

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 20채와 다양한 식료품, 생활용품을 후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소흥근 전주완산로타리클럽 회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식·성과 공유

‘전주 큰 꿈, 특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

전주시 싱크탱크인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비자, 이하 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전주 발전을 위한 미래연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원은 지난 20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 및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전주시정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2024 전주 큰 꿈, 특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연구원은 창의성·실현 가능성·효과성·완성도라는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교차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 최우수상 2편과 우수상 2편, 특별상 1편 등 총 5편의 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전주의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전주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방 거주

청년의 인구이동 유형에 따른 혼인형태 분석’이 선정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연구원의 2024년 연구 성과와 2025년 연구 아젠다가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시장연구실장은 종합발표를 통해 올 한해 수행한 총 22건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8대 연구 아젠다를 제시했다.

8대 아젠다는 △상생하는 광역도시 △지속가능 실천 도시 △세계·미래로 나아가는 문화관광 도시 △전주 가치에 바탕한 전통문화 산업화 등이다.

연구원은 이날 제시된 8대 아젠다를 바탕으로 2025년 주요 연구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시와 교통, 환경, 문화관광, 경제, 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현재 전주시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주의 미래를 설계할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성과공유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 20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 및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회가 우리 전주시의 내년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두루 살피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끊임없이 전주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비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올해는 연구원의 기초를 다지고 동시에 정책연구와 연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면서 “2025년에는 우리 시의 미래 전략과 현안대응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더욱 믿음직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황금열쇠’ 수수 의혹 이환주 전 남원시장, 불기소 처분

전직 남원산림조합장으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 전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께 자신의 퇴임식에서 전 남원산림조합장인 A씨로부터 순금 두 돈 어치의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추석을 전후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송이버섯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전 시장이 A씨에게 황금열쇠를 받

아왔다는 의혹을 포착한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계속해서 들여다봤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A씨와 당시 조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A씨 등은 남원시와의 미세먼지 숲 조성 수의계약 사업 과정에서 나무 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차익을 돌려받아 1억6806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